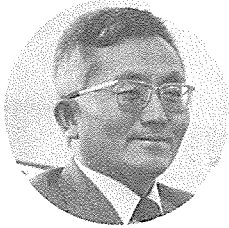


임금님들의 건강과 朝鮮의 醫術

朝鮮王祖의

평균壽命 47세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교수 · 科學史〉

사람들은 대개 지금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달을 거듭해 가노라면 언젠가는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는 질병을 말끔하게 퇴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정말 사람은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완벽한 건강을 누릴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과 함께 질병도 “발달”(?)하여 새로운 병이 인간을 괴롭힐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질병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최근의 ‘선천성면역 결핍증’이라는 에이즈(AIDS)만 보아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어디 그런 고약한 질병이 옛날에 있었던가 말이다. 미국에서만도 6만 명의 환자에 이미 3만 4천명이 죽었다는 AIDS는 전세계에서 무서운 속도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10여명의 환자에 두세명이 죽은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환자가 더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디 AIDS뿐인가? 암으로 죽어 가는 사람도 자꾸 많아지는 듯한 기분인데, 언제나 그걸 퇴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짐작도 하기 어렵다.

물론 그렇다해도 옛날에 비하면 인간이 훨씬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한 나라의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던 옛날의 임금들도 지금 우리 “보통 사람”만큼의 건강을 누릴 수 없었으니 말이다. 누구에게나 친근하

게 느낄 수 있는 조선 시대의 임금들이 어떤 건강 상태에 있었던가를 살펴 보면 우리는 모두 우리들이 지금 옛 임금님들 보다는 훨씬 의학의 혜택을 듬뿍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조선 왕조는 1392년 이성계에 의해 시작된 후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점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사이 왕이 된 사람은 모두 27명...학생들이 “태-정-태-세-문-단-세...”라 외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이다. 당대의 모든 좋은 걸 다 먹고 의학적 혜택도 모두 받았던 이들 왕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면 47세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인 남자 평균 수명은 65세를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에는 17살의 나이에 죽임을 당한 端宗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의 경우를 통계에서 뺀다해도 평균 수명은 50미만이다. 우리들은 옛 임금들 보다 오래 살고 있는 것이다.

왕들의 건강상태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는지 따져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임금에게는 왕비는 한 명이지만 후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 임금들은 대개 한 여성에게만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나의 조사 결과 조선시대의 왕 27명 가운데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사람은 제3대 태종으로 29명이고, 그 다음은

성종 28명, 선조 25명, 정종 23명, 세종 22명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아이를 한 여자가 다 낳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데, 태종은 29명의 자녀를 몇 명의 여성으로부터 얻었던 것일까?

다시 이 순서대로 여성의 수를 알아 보면,太宗은 10명, 成宗은 11명, 宣祖는 7명, 定宗은 6명, 世宗은 6명의 여성으로부터 20명 넘는 아이들을 보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中宗이 20명의 자녀를 가졌는데 그의 경우는 8명의 여성이 이들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 시대의 27명의 임금 가운데 20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왕은 6명이었고, 이들 임금은 각각 6명에서 11명까지 왕비와 후궁으로부터 자녀를 얻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순전히 통계적으로만 보면 모두 48명의 여성이 147명의 자녀를 낳은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는 한 임금이 6명의 여성으로부터 각각 평균 3명의 자녀를 얻은 셈이 된다.

그런데 얼핏 보더라도 이들 임금은 모두 조선 전기의 통치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후기, 즉 1600년 이후의 조선 시대에는 자식 많은 임금은 없었던 말인가? 보통 조선시대는 壬辰亂이라는 큰 사건을 경계로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 임금을 가지고 나눌 때는 임진란을 겪은 宣祖가 1608년에 죽고, 光海君이 그 뒤를 이은 것을 경계로 삼는다. 宣祖는 마침 14대 왕이어서 27대의 가운데 왕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로 선조까지만 자식 많은 왕이 있을 뿐이지 그후에는 20명 이상의 자식을 낳은 임금이 없다.

◇ 조선후기 임금 자녀들 일찍 사망

조선 후기에서는 83세까지 살았던 장수의 기록을 가진 英祖가 14명의 자녀를 가진 것이 제일 많은 경우이다. 더욱 이상한 현상은 조선 후기의 왕이 낳은 자녀들은 전기와 달리 낳자마자 1년 전후에 죽어 버린 수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6명의 여성에게서 14명의 자녀를 얻은 英祖는 그 가운데 5명을 이렇게 일찍 잃었다. 140년 전에 “강화도령”을 데려다가 갑자기 왕을 만들었던 哲宗의 경우에는 14년의 임금 노릇을 하는

사이에 6명의 여성으로부터 11명의 자녀를 얻었으나 그 가운데 10명이 일찍 죽고 단 한 명만이 살아 남았다.

哲宗의 왕비는 당대의 세도 집안이었던 安東金씨에게서 들어 왔는데, 이 왕비가 낳았던 아들을 비롯하여 5남6여 가운데 淑儀 范씨가 낳은 딸 하나만이 살아 남고 모두 일찍 죽어 버린 것이다. 이 딸은 뒤에 성장하여 일단 甲申政變의 주역이었던 朴泳孝의 아내가 되지만 그나마 곧 죽어 박영효는 부마였던 덕으로 평생 다시는 정식결혼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 19세기 후반 서양의학 도래

철종이 이렇게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33세에 죽자 12살 짜리 소년이 갑자기 뽑혀 들어가 임금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高宗이다. 흥선 대원군, 보통은 그냥 大院君으로 불리는 李昰禧의 아들이었던 이 소년도 일단 왕궁에 들어가 자녀를 낳기 시작하자 그리 행복스럽지는 못했다. 고종은 4명의 여성으로부터 7남3여의 자녀를 얻었다. 그런데 이들 10명 가운데 6명이 일찍 목숨을 잃고 4명만이 살아 남았던 것이다. 이들이 자라던 19세기 후반에는 근대 서양의학의 혜택이 이 땅에 들어 오고 있었는데, 왜 이들은 그 혜택도 못 받고 그리 쉽게 죽어 갔던 것일까?

조선의 왕족은 1880년대부터는 서양의학의 도움을 상당히 받을 수 있었고, 사실 그 때문에 몇 명은 살아 남을 수 있었을 것도 같다. 고종의 자녀들은 나라가 망하는 비운과 함께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게 되었지만, 그들의 이력을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종은 그 아내인 명성왕후 민씨로부터 4남1여를 낳았는데, 그 가운데 둘째 아들만 살아 남아 1907년 아버지를 계승하여 조선왕조의 마지막 임금 純宗이 되었다.

순종은 1874년에 태어나 1926년 53세까지 살았으나 그가 그리 건강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말의 지사 黃玿이 남긴 海泉野錄에 의하면 순종이 자녀를 가지지 못한 것은 그의 건강 상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궁녀를 시켜 남녀의 길을 가르쳐 보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여서 가슴을 찢었다고도 적고 있다. 또 당시 사람들은 完和君을 해친 업보를 민황후가 받은 것이라 말했다고도 기록돼 있다. 완화군이란 고종의 첫아들이다. 후궁인 淑媛 李씨가 고종이 17세 때 낳은 아들인데 13살에 급사했다. 대원군이 이 첫 손자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고 민황후가 질투하여 농간을 부렸다는 전설이 있다. 황현은 바로 이 전설을 지적한 것이다.

고종의 아들로 한 살 이상을 산 사람으로는 보통 義親王, 英親王으로 알려진 두 왕자가 있다. 숙원 장씨가 1890년 낳은 의친왕은 원래 義和君으로 불렸는데, 이름은 李堉이었고, 독립 운동에도 가담했던 인물이다. 그의 이복 동생인 영친왕 李垕(1896-1970)은 후궁 엄씨의 소생으로 11살 때 伊藤博文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가 일본 육사를 거쳐 일본 왕족의 딸 方子와 정략 결혼시키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다.

아무래도 조선 전기의 왕들에 비해 후기의 왕들은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아마 궁궐 안에 어떤 전염병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조선 왕실의 출산수를 전기와 후기로 나눠 조사해 보았더니 전기에는 모두 178명의 왕자와 공주가 태어나 그 가운데 2명 썸이 일찍 죽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반해 후기에는 출생수가 74명으로 줄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45%나 되는 33명이 1년 이내 정도에 죽어 버렸다. 1년 이상 살아 남은 왕자와 공주의 수를 비교한다면 조선 전기의 176명에 비해 후기에는 겨우 41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후계자를 얻기 위해 多産

조선 왕조는 전제 군주국이였다. 임금이 모든 나라일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나라였다. 그런 나라의 임금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정치가 어지러워질 것은 정한 이치이다. 임금이 어려서 물정을 모르거나, 건강이 나빠 나라 일을 돌보기 어려워

도 나라일을 그대로 팽개쳐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임금의 조정없이 신하들끼리 무슨 결정을 내리다가는 서로 의견다툼이 감정적 대결로 흐르기 쉽고, 서로 이기려고 파당을 지어 싸우기 쉽다. 조선 후기의 정치가 당쟁으로 얼룩진 이유는 바로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임금이 확실한 후계자를 얻지 못한채 죽게되면 후계 문제를 둘러싼 신하들의 갈등은 보통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잇달았고, 정치는 그와 함께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역시 연구가 잘 돼 있지 않은 일이지만 조선 후기에는 전국에 잇달아 전염병이 퍼졌다. 천연두(마마), 장티푸스, 콜레라 등이 번갈아 전국을 휩쓸었다.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왕 가운데에도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지금 TV 역사극을 보면 조선시대의 임금은 모두 미남이었던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얼굴이 얇은 왕도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

◇ 그 당시는 전염병으로 치명률도 높았다.

지금과는 달리 처음 그런 전염병이 들어 왔을 때에는 치명률도 아주 높았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다음 스페인 사람들은 중남미를 아주 간단하게 정복해 갔다. 멕시코의 아즈테카 문명을 간단히 굴복시킨 코르테즈의 군대와 남미의 잉카 문명을 파괴한 피짜로의 군대들은 반드시 군사적 우위로 그런 정복을 해낸 것이 아니었다. 스페인 군대가 묻혀 간 유럽의 전염병이 아메리카의 원주민을 강타했던 때문에 그들은 전투다운 전투조차 벌려 보지도 못하고 정복당했던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 땅에 처음 들어 온 전염병들은 무엇 무엇이며, 그들은 얼마나 심한 피해를 우리 선조들에게 끼쳤던 것일까? 그리고 AIDS라는 현대의 흑사병은 또 얼마나 무서운 피해를 준 다음에나 인류에게 면역성이 생겨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질병이 되어 갈까? 아직 아무도 그 대답을 알 수는 없다.